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영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6월 목회력:
 - 6/14(일) 유초등부 달란트시장
 - 6/21(일) 6월 나라주일
 - 6/27(토) 연합어린이여름성경학교 2차 준비모임(퀵른)
- 주일 설교 : 6월 14일-채해웅 목사, 6월 21일-이동훈 목사
- 라합1나라모임: 6월 9일(화) 10:30 박성희 님 가정
- 라합2나라모임: 6월 10일(수) 10:30 Hotel KO
- JC Connect: 6월13일(토) 15시 30분-20시
Frankfurt(감리교회) + Düsseldorf(Stadtmission/은혜한인교회)
- 생일축하: 오지훈, 백지원, 김호정, 엄선규

◆말씀일기 일정

일/고전4:6-21 월/고전5:1-13 화/고전6:1-11 수/고전6:12-20
 목/고전7:1-24 금/고전7:25-40 토/고전8:1-13 일/고전9:1-23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79독

◆ 예배위원 안내 ◆

	6월 7일	6월 14일	6월 21일	6월 28일
예배기도	서민규	백수정	김호정	정보현
안내위원	예배부			
봉헌위원	유근임 김혜경			
애찬위원	밥상 여툼	밥상 하나	밥상 둘	밥상 셋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 15:9)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소망방



담임/ 손교훈 목사 Pasto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박승은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6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 79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379장	다	함	께
기도/Gebet		서민규	집사	
찬양/Chor	하나님의 아들이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벧전 1:1-2	인	도	자
설교/Predigt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박영철	목사	
찬송/Gemeindelied	508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박영철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Missions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
 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말씀일기: 고린도전서 3:1-9 '어른', 박승은 목사 ◀

고린도교회는 바울에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는 칭찬을 들었다. 표면적으로 이 교회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3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표현한다. 이는 고린도교회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등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바, 바울, 아볼로는 각각 유다, 헬라,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고린도교회는 사실상 지역으로, 출신지로 파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뒤이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베드로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일 뿐이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우리의 출신과 성별, 나이, 생각, 재정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며 집이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은사를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역할을 교회에서 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나는 얼마나 교회와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가?
 나는 얼마나 사람을 출신, 성격, 능력 등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대해주는가?
 나는 얼마나 갈등이 있는 곳에 나의 부드러운 마음을 누룩처럼 전달하는가?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른이다. 나는 신앙적으로 어른인가? 그리고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은사보다, 그러한 어른이 되기를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가?

▶ 지난 주 봉헌 내역(5월 31일-6월 6일) ◀

십일조	감사헌금	목적헌금
김한진 권순아 민명희 신형만	조준호 조예나 류요한	Cornelius Brühn
총액 1.124,10유로 = 844,10 (예배당) + 280,00 (온라인)		